총선이후의 과제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 선거였다. 투표율 4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경종(警鐘)이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0% 미만이 투표했고 50%미만 득표할 경우 4명중 1명만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20명의 후보는 30%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면 왜 이리 투표율이 낮았을까. 양대 정당이 후보 공천을 늦게 했다는 점, 선거쟁점이 없어 시들해진 분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보수진영의 대거진출과 민주화세력의 몰락을 들 수 있다. 보수진영은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보수계 무소속 18석등 도합 203석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17대 민주화세력, 진보진영이 차지했던 171석을 능가하는 숫자이다. 이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석 과반수를 넘기긴 했지만 안정적 국정운영을 충족시킬 수 있는 158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통합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등 야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순환하는가(아놀드 토인비)' 아니면, '역사는 진화하는가(E.H.카아).' 우리나라의 정치 핵심세력이 산업화 중심의 보수 세력에서 진보와 민주화를 내세운 386세력으로 좌회전 진행하더니 다시 보수 세력으로 우회전을 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축이 개인호주머니(복지)보다 나라살림(성장)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구(牽制球)를 통합민주당이 아닌 이회창(충청), 박근혜(영남)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충청도의 정치성향은 여야 골고루 나눠주는 합리적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일색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민심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뿔이 났는가. 또 영남권의 민심은 공천불만에 따른 박근혜 동조론이 크게 작용했다.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말하는 박근혜의 목소리에 영남권의 민심은 정서적으로 동감했고, 이명박 정권의 실세 몇 사람이 낙마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500만표 이상으로 압승한 이명박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오만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넷째, 이제 3김(金)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선생님'의 입김이 먹히지 않았다. DJ의 3남 김홍업이 낙선을 한 것은 호남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YS의 아들 김현철은 공천신청조차 못했고, JP의 흔적은 바닷가 모래위의 글씨처럼 희미하다.

그러면 앞으로 정국의 방향은 어떻게 짜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선거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화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찬 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독주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다. 한미 FTA비준 및 체결문제, 금융산업의 개편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설정문제, 양극화문제 해결 등 수 없이 많다.

또 한반도 대운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를 만드는 것에 많은 국민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에 불과하지만 잘못 판 대운하의 재앙은 영원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심각한 토론을 거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실용경제, 실용복지, 실용외교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생님, 여기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⑲ 초등학생의 배려하는 마음과 용기

빨간 지갑의 유혹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정양은 참고서 하나 제대로 사기가 힘들었다. 예쁜 학용품들은 더욱 그림의 떡이었다. 어린 마음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예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반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보았다. 순간 눈에 확 들어왔다. 정양이 평소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가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이 너무 좋아보였다. "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며 '아, 저 지갑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도 꺼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기가 죽었지요."

점심시간이 되었다. 문득 아까 그 아이 자리로 눈을 돌렸는데 뜻밖에도 그 지갑이 보이는 것 아닌가. 점심 먹고 책상 위에 그냥 두고 나간 것 같았다. 정양은 가까이 가서 좀 더 보고 싶어졌다. 마침 교실엔 거의 아무도 없었고 각자 자기 일 하느라 바빴다. 정양은 그 애 자리로 가서 지갑을 들고 잠시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지갑을 들고 자리로 와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버렸다. "남의 것을 가진다거나 훔친다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쁜 것을 보아서 내가 가진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애가 놔두고 나갔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될 무렵 그 지갑주인 아이가 울음을 터트린 것이다. "선생님, 지갑이 없어졌어요. 난 어떡해요." 그 애는 엉엉 울었다.

제가 했어요

담임선생님은 놀라 "어디에 두었니?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니?" 하고 물었다. "분명히 여기 책상 위에 두었어요" 그러자 옆의 아이들도 "맞아요, 우리도 보았어요" 했다. 담임선생님은 심각해졌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말이냐. 이럴 수가 있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설명하며 화를 내었다. 정양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떨려왔다.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생님은 우선 모두 일어나서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했다. 그리고도 발견되지 않으면 전부 밖에 나가게 하고 모든 아이들 가방과 소지품을 검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들 바닥과 주위를 찾아보느라고 야단이 났다. 정양은 점점 무서워졌다. 분명히 검사하면 내 가방에서 나올 텐데, 이 일을 어쩐다! 어쩔 줄 모르던 정양의 눈에 옆짝 홍군의 가방이 보였다. 정양은 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홍군의 가방에 넣어버렸다. 홍군도 그것을 보았다. 홍군은 정양을 보고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었다. 정양은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어버렸다.

홍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교실이 일시에 조용해지며 홍군을 주목하였다. 홍군은 자기 가방에서 그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앞의 선생님께로 들고 가는 것이었다. 정양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제 난 죽었다. 난 도둑이다. 끝장이다' 하는 생각만 들었다. 앞으로 나간 홍군은 선생님께 지갑을 드리며 "죄송합니다. 아까 지나가는데 책상위에 지갑이 있었어요. 빨간색이 하도 예뻐서 잠깐 보려고 가져왔는데 그만 가방에 넣어버린 것 같아요.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고 말했다. 선생님은 지갑 찾은 것이 너무 반가웠는지 "그러면 되나. 아무리 잠깐이지만 남의 것을 말 안하고 가져가면 안 돼. 그래도 금방 말해주니 잘했다" 하고 곧 상황을 끝내버렸다.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보시

그 일은 정양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홍군은 잘못하면 누명을 쓸 뻔 했는데도 자기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정양을 감싸주어 아무도 모르게 해주었던 것이다. 당시는 잘 몰랐지만 철이 들면서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진한 감동으로 마음에 다가왔다. 홍군과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그 사건은 정양을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중고등시절 정양은 반에서 '천사표'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친구들을 감싸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에 누구보다도 열심이다.

"불교학생회를 하면서 육바라밀의 하나인 보시를 배웠을 때, 아, 홍군 그 친구가 나에게 해 준 것이 진짜 보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양은 홍군으로부터 어떤 비싸고 좋은 물건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아상이 가득하고 존중과 배려가 아쉬운 시절에 한 초등학생이 보여준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용기가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 일부 부끄러운 어른들에 대해서 더욱 참회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종지종통에 충실한 종도 되자

조계종이 4월 11일 중국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 우민사에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를 제막했다. 우민사가 있는 곳의 옛 지명은 홍주이고 절 이름은 개원사였다. 6조 혜능 선사의 법맥을 이어 우리나라에 남종선을 전한 도의국사가 구법한 곳이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 국사의 구법지에 비를 세움으로써 조계종의 정체성이 6조 이래로 전승되어 온 남종선에 있음을 다시 표방한 것이다.

물론 조계종은 선만을 주장하는 종단이 아니다. 여러 수행법을 포용하고 원융과 조화의 종단을 주창한다. 다만, 종단의 뿌리가 선불교에 닿아 있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구법비를 세웠다. 우리는 조계종의 구법비 제막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종지종통에 충실한 종단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단의 정체성은 곧 종단 구성원인 사부대중의 정신과 행동양식의 근간이다. 종단은 멀리 역사적 전거를 더듬어 종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애쓰는데 종도들이 종단의 뿌리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남종선)만이 조계종의 근본인 것은 아니지만 수행과 신행의 내용에 앞서 종도로서의 기본자세가 올곧아야 종단도 바로 선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은 지금 포살 결계 관련 법을 공포하고 수행가풍을 확립하려고 애쓰고 있다. 불교가 현대화 사회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수록 종지종통에 충실한 종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자리이타' 새기는 봉축기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 봉축 일정이 발표되면서 세상은 바야흐로 연등 물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올 봉축 표어는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다. 달리 말하면 보살도의 실천을 다짐하는 봉축기간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뜻이다. 우리시대 불자들에게 가장 요긴하게 요구되는 것이 '자리이타'의 정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위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보살의 정신에 다름 아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혹자는 '세상살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닐 것이다. 명상이나 요가에서 참선 염불 등 다양한 수행에 몰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지식사회에서 지혜사회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행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스스로 닦은 몸과 마음을 이웃에게 회향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시대적 흐름이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표어에 담겨 있는 셈이다.

봉축행사는 축제다. 축제는 즐거워야 하고 그 즐거움은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봉축행사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연등축제가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길어 올리는 신명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필름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